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	번호
98 5/24	A3-5	96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보도자료>

중국 조선족사기피해자 대표 3인, 구제대책을 촉구하는 무기한 농성 시작. 北京駐中한국대사관 1급 보위조치 발동

오늘 1997년 6월 2일부터 중국 한국초청사기피해자협회 회장 李英淑과 회원 崔美花, 연변발 화리경제무역공사 총경리 鄭峰虎는 조선족 사기피해자들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하면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4층강당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합니다.

이영숙회장과 최미화씨는 지난 5월 17일, 사기피해 조선족들의 처지를 알리고 시급히 이들의 구제 대책을 한국정부가 세워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 입국하였습니다. 이들은 각계 인사들과 언론사들을 방문하는 등 사기피해로 인한 조선족들이 처한 상황과 구제책 마련의 협조를 각계에 호소하여 왔습니다. 정봉호씨는 북경대 출신의 조선족청년실업가로서 한국인 김某씨와 조선족 500명의 한국 어선취업을 추진하다가 1억3000여만원의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현재 김某씨는 1심에서 5년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않고 있고 이로인해 정봉호씨는 극한 상황에 있는 피해자들로 부터 태리의 위험이 있는 관계로 귀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한국입국을 위해 초청사기 당한 조선족의 수는 약 1만 7천여명이 되고 이들이 사기당한 금액은 그후에 불어난 이자까지 합해 약 한국돈 500백억원 가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기이후 폭행과 횡병, 지살, 그리고 빗쟁이에게 피살당한 사망자의 수가 연변지역에서만 이미 75명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의 노력으로 가해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와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적인 피해변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로 인해 혜택을 본 사람은 전체 피해자의 5%에 불과하고 그것도 이미 이자액이 원금보다 더 많아져 원금보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유일하게 기대하는 것은 하루 속히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어 돈을 벌어 빚을 갚게하는 길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소망이 들어지지 않는다면 1만 7천명의 사기피해자들 중에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죽거나 극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피해자들중 일부가 한국대사관에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휘발유로 대사관을 불태우고 우리도 죽고 말겠다'는 편지를 보내어 중국 공안에서 한국대사관에 1급보위조치를 발동하고 주위에 천명의 경찰을 배치시키는 등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노동자 관련法 도입에 상당한 희망을 걸고 있으나 중기협을 위시한 경제단체들의 반대로 인해 자칫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화 되지 못할까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의 절박한 심정을 호소하고 근본적 대책을 촉구하고자 농성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들은 오늘(2일) 오후 4시부터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의 강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이들의 절박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온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으로서는 이들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농성 장소로 강당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은 더 이상 조선족사기피해자들의 문제가 방치되어 또다른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외국인 관련 법이 제정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들이 처한 상황을 심분 헤아려 이들의 애끓는 호소가 각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취재,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오후 4시에 농성에 들어가면서 이들은 각계와 정부에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문의처 :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734-7070)

(김동대 대표 시영남 등)
 상남 ←
 2/3/28/97/500

<호소문>

**중국 조선족사기피해자의 문제해결을 위해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도입을 촉구하는 농성을 시작하며**

중국 한국초청사기피해자협회 李英淑 회장
崔美花 회원
연변발화리경제무역공사 鄭峰虎 총경리

일 시: 1997년 6월 2일 오후 4시부터

장 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4층 강당

오늘 1997년 6월 2일부터 우리들 중국 한국초청사기피해자협회 회장 이영숙과 회원 최미화는 조선족 사기피해자의 문제해결을 위해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촉구하면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4층강당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하기로 다짐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한국입국을 위한 초청사기 당한 조선족의 수는 약 1만 7천여명이 되고 이들이 사기당한 금액은 그후에 붙어난 이자까지 합해 약 한국돈 500백억원 가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기이후 폭행과 횡병, 자살, 그리고 빗쟁이에게 피살당한 사망자의 수가 연변지역에서만 이미 75명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우리들 사기피해자들은 지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죽지못해 살고 있으며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없는 극한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한국경찰의 노력으로 사기꾼을 잡아 재판에 넘기고 사기친 돈을 갚도록 하였으나 이로 인해 혜택을 본 사람은 전체 피해자의 5%에 불과하고 그것도 이미 이자액이 원금보다 더 많아져 원금보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하루속히 한국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어 우리 손으로 돈을 벌 어 빚을 갚을 방법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최근 저희 사기피해자들은 대한민국정부가 외국인노동자 관련법을 제정하여 노동허가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큰 희망을 걸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야 우리들 사기피해자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최근 정부가 외국인노동자로 하여금 한국어시험을 치르어 성적순으로 입국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방식을 애타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험을 치르되 우리들 사기피해자에게는 일정한 가산점을 주어야 피해자들이 우선 입국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산업연수생제도를 관할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전경련등 다른

경제단체들과 연합해서 노동허가제를 극렬히 반대하는 모습을 보고 커다란 근심이 생겼습니다. 만일 이번에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1만 7천명의 사기피해자들 중에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죽거나 극한 행동을 할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중국한국초청사기피해자협회 왕청현(汪淸縣, 연변 북쪽)분회에서 한국 대사관에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휘발유로 대사관을 불태우고 우리도 죽고 말겠다'는 팩스를 보내어 중국 공안에서 한국대사관 주위에 천명의 경찰을 배치시키는 1급 보위조차를 취했다는 소식을 전해받았습니다. 본인은 피해자협회 회장으로서 왕청현분회에 강력히 항의하고 그러한 극한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내용의 글을 한국대사관에 다시 보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청현분회는 일체 어떤 행동도 하지 말고 조용히 근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본인은 피해자협회의 회장으로서 왕청현분회의 행동에 대해 대신 크게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회장으로 있는 한 피해자협회에서 어떠한 극한행동도 없을 것임을 약속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들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희망이 완전히 사라질 때에는 이들은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로 다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며 그 결과는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최근 고용허가제를 둘러싼 쟁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본인은 에타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노동자제도 개혁과 관련된 쟁론이 우리들 같은민족 사기피해자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문제, 그리고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문제는 중시하지 않으며 오로지 중소기업의 인건비부담이라는 차원에서만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 문제가 조선족사기피해자 문제의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논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 사기피해자협회로서도 어떤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금일부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강당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 강당사용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아울러 폐를 끼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들 중국 한국초청사기피해자협회의 협회원들은 **각자 개별적으로 북경 한국대사관에 찾아가 대사면담 신청을 하는 일을 시작하였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의 안타까운 사연을 한국에 전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방안입니다. 중국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집단행동도 시위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사기피해자들은 지금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주위에서 중국돈 200원(한국돈 22000원)의 차비를 마련하며 며칠 간의 식량을 자루에 넣어 둘러메고 북경으로 이미 떠났거나 혹은 떠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길을 나설 때 1) 피해자협회 이영숙회장의 지시에 절대 복종할 것. 2) 폭력이나 폭언을 절대 하지 않을 것. 3) 중국법을 조금도 위반하지 않을 것 4) 근본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돕는 사회,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한국민과 조선족과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 대사에게 면담신청을 하는 것임을 명심할 것을 서약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면담신청하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김수환추기경님과 월주스님을 비롯한 우리 고국의 각계 어른들, 그리고 언론기관에서는 저희들의 피눈물 나는 사연을 깊이 헤아려서 문제해결을 도와주시기를 피눈물로 호소합니

다.

1997년 6월 2일

중국 한국초청사기 피해지협회 회장 이영숙

회원 최미화

연변발화리경제무역공사 총경리 정봉호 올림